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⑥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9)

위의 한 절은 로마서를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지는 의가 어떻게 다른 지를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로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

성경은 이들을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3:19)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헛된 것들만 섬깁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우둔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된 자요, 미련한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② 도덕주의자

도덕주의자는 윤리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도덕의 표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산상보훈이 도덕의 표준이라면 산상보훈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세운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언젠가 그 판단의 잣대가 자기에게 적용되어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③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칭찬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박수를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3.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롬 1:17에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엡 2:8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뛰어난 지식이나 통찰력보다 훨씬 중요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 되어진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일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두 종류의 의

(1)하나님의 의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순수성, 완전성, 거룩성, 하나님 사랑의 지고성 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로서 거기에 조금도 불의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의, 거룩한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모든 것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2)사람의 의

사람의 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착오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주장이나 행동의 정당성을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모두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2. 세 종류의 인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은 결국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육신적인 모습이나 지식의 분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① 쾌락주의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철학은 오직 자기를 위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는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10편을 선정하여 사순절 기간까지 게재한다)

조선 선교의 교두보, 제중원



손달익 위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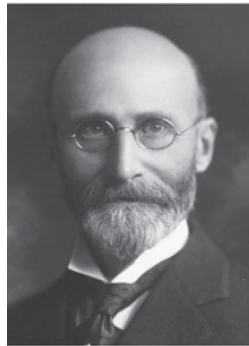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렌과 그의 시료(施療)가 이 백성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민영익을 살리는 알렌 선교사



민영익



알렌 선교사



제중원 전경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조선 정부는 조항에 “불입교당(不立教堂)” 즉, “교회당을 세울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자 했다. 기독교 선교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나라의 이홍장이 그런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독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조약에 선교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빠지게 되었지만 선교사가 조선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알렌(Horace N. Allen)도 공식적으로는 의료선교사가 아닌 미국 공사관 의사로 내한하였던 것이다.

알렌은 신중한 성격을 가진데다 미국공사관 직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삼갔다. 그러나 그 역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선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체류 3개월 만에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왔다. 1884년 12월 4일 저녁 조선 최초의 근대식 우편제도인 우정총국의 개소식에 맞춰 급진 개화파 청년들이 수구세력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난리통에 온건 개화파의 민영익이 자객의 습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민영익은 명성왕후의 인척으로 미국과의 조약 체결 후 특명전권대사로 보빙사를 이끌었던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부상당한 민영익은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하던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집에 누워있었고 뮐렌도르프는 당시 조선에 체류하던 유일한 서양인 의사인 알렌을 불렀다. 실력있는 한의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여러 곳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민영익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양식 외과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알렌의 의술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의술을 공부한 것은 약 1년에 불과했고 의사가 된지도 20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경험도 부족한 신출내기였다. 이후에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는 편지에 의료지식과 기술에 자신이 없다는 언

급을 했을 정도로 알렌은 미숙한 의사였다. 하지만 알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수술은 성공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 일로 알렌은 고종과 명성왕후의 신임을 얻었고, 의술도 인정받았다. 용기를 얻은 알렌은 1885년 1월 미국 대리공사 푸크(George C. Foulk)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관 김윤식과 의논하여 고종에게 “조선왕립병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 제중원이다.

제중원은 운영과 행정은 조선정부가 담당하지만 의사와 의약품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가 제공하는 관민합작 병원이었다.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이 병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왕립병원이었지만 선교사인 알렌과 미국 북장로회의 입장에서 이 병원은 선교기관이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장로회와 감리회의 개척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헤론(John W. Heron) 등의 선교사들이 모두 처음에는 이 제중원의 의사와 교사 신분으로 서울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제중원의 설립은 기독교 금교정책을 펴는 정부가 선교사와 협력하여 선교기관을 설립한 그야말로 독특한 사례이다. 후에 제중원의 원장이 된 에비슨(Oliver R. Avison) 선교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렌과 그의 시료(施療)가 이 백성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알렌의 공로는 이 섭리에 겸허하였던 데에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21-27)



새봄, 서울성경대학·열린프로그램과 함께!

히브리서의 정수를 찾는 시간



조원영 목사
(히브리서반
담당교역자)

히브리서는 저자, 저작 장소, 저작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책입니다. 사상적 배경이나 문학 장르, 그리고 문학적 구조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인용이 많은 책으로 이에 학자들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분석해서 이 책의 내용을 추론하여 설득력 있게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에도 대단히 난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몇몇 단편적인 주요 구절들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지만 히브리서의 정수가 무엇인지는 그런 구절들이 대표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기존 서신들과 구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단히 체계적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논지를 파악하여 가다보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확신,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해답과 위로를 제공하는 보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적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전쟁과 기후변화, 내전, 기근, 포스트 코로나의 지구촌의 문제들이 현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탐구, 적용할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시편 시와의 만남



현종필 목사
(시편반
담당교역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꼭 빠지지 않는 성경이 시편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시편만큼은 좋아하며 즐겨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시편 한두 절쯤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시편을 좋아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

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잘 반영하며 우리 삶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다른 성경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시편은 읽기 쉬운 산문과는 달리 시이기 때문에 뜻과 메시지를 해석하기가 단순하거나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문학에 대해 특히 유념할 점들을 알고 있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공부 모임에서 모든 시편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시편의 세계가 어떤 구조와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대표적인 시편들을 중심으로 히브리서의 전반적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깊은 울림을 주는 시편의 시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실버세대를 선교의 골드세대로!



박미라 전도사
(살롬경로대학
지도교역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23년 봄학기 살롬경로대학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실버세대를 선교의 골드세대로!!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노년을 영위하는 교육목적을 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별 활동 시간으로는 미술반, 보드게임반, 워십체조반, 손뜨개반, 탁구반을 운영합니다.
야외활동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신을 새롭게 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살롬경로대학으로 오세요!
* 교육시간: 2023.3.9-5.11 (매주 목요일, 10주)
* 시간: 오전 10:30
* 장소: 101호
* 특별활동반: 미술반, 보드게임반, 워십체조반, 손뜨개반, 탁구반
* 부장: 김광태 장로
* 지도: 박미라 전도사



미취학 어린이의 인지·감각·영성의 균형있는 신앙교육, 아기학교



강남희 전도사
(아기학교
지도교역자)

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계절에 아기학교 3기가 출발합니다. 아기학교는 미취학부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아기학교 3기는 교육 대상을 확장하여 3세부터 7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 아기학교 3기는 3월 12일 주일부터 10주 동안 706호(유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창 12장 1-2절)과 사랑

의 예수님”입니다. 먼저 4주간 구약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을 “블레싱 북”을 통하여 만납니다. 신약에서 4주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서울교회 아기학교를 통하여 미취학 어린이가 인지·감각·영성의 균형있는 신앙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에 미취학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2023년 봄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시편	화, 오전 10:30-12:00	3.7-4.25(8주)	현종필 목사	서울교회 602호
히브리서	목, 오전 10:30-12:00	3.9-4.27(8주)	조원영 목사	서울교회 602호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3.12-5.14(10주)	강남희 전도사	서울교회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3.9-5.11(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아브라함선교회 첫 모임을 가집니다



최광성 은퇴장로
(아브라함선교회 회장)

만물이 움터 오르는 봄의 대지처럼 서울교회도 소생의 기운이 무르익는 회복의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선교회가 3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102호(소망부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선교회 회원님들은 지난 6년여 동안 교회의 어려움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활동이 멈춘 시

기에도 교회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교회의 어르신들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교회의 최고 어른의 길에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시무직은 은퇴할 수 밖에 없지만 아직도 능력 많으시고 의욕도 넘치시는 은

퇴 성도님들이 모여 계속 삶의 활력을 이어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선교회 못지 않은 활발한 선교회가 되어 그동안 다소 침체되었던 회원님들께서도 다시 자부심 가지시고 교회 활동하시며 끝까지 믿음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채교천 안수집사
(70인전도대 차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2)"

이종윤 원로목사님 장례식장에서 흰 국화 한 송이를 받아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내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무얼 하다가 내 앞에 섰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내 양심의 눈은 백지가 되고 입은 까매졌습니다."

묵묵부답" 그것이 나의 솔직하고 처참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거니와 너는 나의 명령의 길 곧 증인의 길을 걷다가 왔느냐?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나?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던 자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내가 미워한다는 것을 진정 너는 몰랐단 말이나?"

주님! 다시 한번 기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순간 바로 저의 영전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죽고 매일 깨어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마 9: 37)' 서울교회의 70인전도대의 출발은 70인 만의 전도대가 아니고 전 성도가 전도대가 되는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고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그 만큼의 빛진 교회입니다. 많은 어린 심령들이 오가는 곳, 들판이 온통 희어서 많은 일꾼을 부르는 곳, 믿음의 예루살렘 대치동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증인 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노방전도 시작하는 시간
- 주일 : 오후 1시 30분
- 수요일 : 오후 1시
- 토요일 : 오후 2시
- 모이는 곳 : 603호 / 주일 105호

식사는 만나홀에서! 쓰레기는 지하 1층 쓰레기장으로!

관리위원회(위원장:이강인 장로)는 요 근래 만나홀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가 이뤄지는 일이 있는데 식사는 만나홀에서 이뤄지도록 성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생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을 운반 중 위

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봄을 맞아 각 부서별 예배실 미화를 하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예배 후 대용량의 쓰레기는 지하 1층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기 바란다.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3월 8일(수요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2023년 다락방 리더 훈련을 개강한다.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난민 구제헌금 총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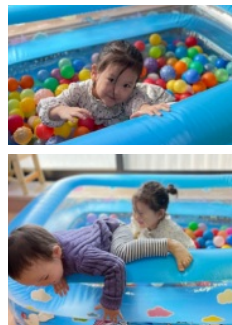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6일(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2월 12일과 19일 2주일 동안 총 25,961,000원을 드렸으며,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이 귀중한 헌금을

성도들을 대표하여 손달익 위임목사가 2월 28일(화)에 총회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생각하며 많은 구제헌금을 하신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에는 권사회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왼쪽: 권사회 특송 / 중앙: 설교를 담당하신 이광순 목사 / 오른쪽 상단: 인도 장호림 권사회 회장 / 오른쪽 하단: 기도 최중희 권사회 부회장)



지난 2월 24일(금)-26(주일)까지 유아·유치·유년·초등부의 겨울성경학교가 있었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학부모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서울교회장학회(회장:김승록 장로)는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23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봉사에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 바란다.

올해부터는 순례장학금과 광림장학금이 신설되어 더욱 풍성하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관심 있으신 보다 많은 분들의 기증 참여로 장학금 재원이 풍성해지길 바란다.

이번 수여받는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며 선발된 모든 학생은 찬양예배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 일반 및 순례장학생 8명(서울교회)

일반장학생 : 장해라 문영주 정서현 소준 감정현

순례장학생 : 옥유진 김은빈 김상윤

• 송암 및 브리스길라장학생 8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신학생)

송암장학생 : 장하늘 유성근 유성혁

브리스길라장학생 : 김수언 김예지 손주찬

배인혜 김가은

• 광림장학생 7명(호산나·강남구)

호산나대학 : 김은선 최연주 박수진 윤승우 노규미

강남구 관내 : 2명(강남구에서 선발 진행 중)

2023년 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첫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개종자 : 김수만1 계 1명

· 입교자 : 김도윤3 노윤 이시우1 이윤익

장한솔 주하은 최연재1 계 7명

· 유아세례자 : 김로하(부 김지호 모 채민정) 임지욱(부 임만석 모 배경아) 계 2명

· 세례자 : 김종태 전홍 김연희3 이민희1

이승진 임유빈 한승민 계 7명

총 17명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6일	월	신 5-7		왕하 16-21	
3월7일	화	신 8-11		왕하 22-25, 대상 1-2	
3월8일	수	신 12-14		대상 3-6	
3월9일	목	신 15-18		대상 7-11	
3월10일	금	신 19-22		대상 12-16	
3월11일	토	신 23-26		대상 17-24	
3월12일	주일	신 27-28		대상 25-29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 비전 2030 후원자

송인권(1구좌) 소훈·박미숙(1구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송인권(1구좌) 소훈·박미숙(1/2구좌)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송인권(1구좌) 소훈·박미숙(1/2구좌)

전도위원회(위원장:차영도 장로)는 비전 2030운동·농어촌교회·한가정한선교사 후원을 작정하신 성도와 각 부서에 많은 후원을 감사드리며 후원금이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에 입금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동정

■ 근무처 이동 :

1 교구 양세정 집사(남편 오병호 안수집사)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원주 세브란스병원) 정밀의학과 교수

■ 임명 : 박선영 성도

(박정선 은퇴장로 김남순 권사의 자녀) 스탠퍼드음대 관현악 부감독 임명

■ 식사 제공 :

- 7교구 이상호 은퇴집사 김차순 은퇴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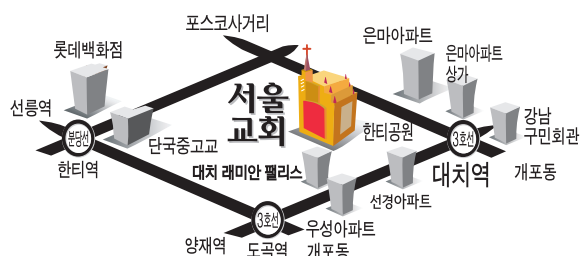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봄을 맞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영성이 싹트게 하소서.
2. 새학기를 맞는 청소년들이 꿈과 소망을 품고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오전 11시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